

“영구임대를 주민이 늘 행복한 아파트로”

광주시 광산구 프로젝트
복지부 사회서비스 공모 선정
의료·돌봄·일터 등
자급자족 복지모델 설립 나서



지난해 12월 광산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의료·복지 전문가 초청 ‘광산형 복지혁신정책 포럼’.

광주 광산구의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정책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2020년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의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 하겠다는 사업으로 광산구가 추진하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광산구는 이번 공모사업에 앞서 민선7기부터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늘 행복한 아파트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늘 행복한 아파트 프로젝트 사업’은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이 주축으로 나서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도록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해당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아파트공동체를 구현해 간다는 취지다. 광산구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확보한 7000만원의 상사업비와 구비 3000만원 등 총 1억원을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협동조합 운영 사업비에 지원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이번 맞춤형 복지정책은 민선 7기 김상호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대표 복지정책으로 제시하면서 추진됐었다.

이에따라 광산구는 지난해 2019년 6-8월

까지 우산동 영구임대아파트 2곳 3,075세대 전체를 공무원 146명을 투입, 2인 1조로 방문하는 ‘주민 욕구조사’를 실시했다.

생활실태를 비롯해 주거·일자리·보건의료·정신건강 5개 분야 109개 항목의 설문조사 결과를 참담하게 나타났다.

응답자 69.8%가 1인가구 세대였고, 입주 주민 67%가 기초수급자로 경제활동이 거의 없는 중장년·노인·장애인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고립과 낙인효과, 사회적 배제 등이 얽히며 거주민 51%가 우울증상을 호소했고, 이중 25%는 실제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얽힌 데 얽힌 격으로 주민들은 생활고로 기본생활 유지가 어려웠고, 3-4개의 만성질환을 겪으며 의료비용이 생계급어를 넘어서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이에 광산구는 같은 해 12월 전국 의료·복지 전문가들을 초청으로 초청해 ‘광산

형 복지혁신정책 포럼’을 열고, 주민 욕구조사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임종환 인하대 산업의학과 교수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의료·복지 문제를 풀어갈 것을 조언했다.

광산구는 주민 욕구조사 사 분석을 토대로 포럼 의견을 반영하여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행복을 높이는 ‘늘 행복 프로젝트 5대 전략’을 수립했다.

프로젝트 5대 전략은 △건강한 의료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늘 행복 주치의센터’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는 ‘늘 행복 돌봄센터’ △공익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늘 행복 일터’ △공간 리모델링과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늘 행복 하우스’ △고독사 및 우울증을 예방하는 ‘늘 행복 공동체’로 구성되었다.

이렇듯 광산구의 늘 행복 프로젝트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의료·돌봄·일터·주거 문제를 단지 내에서 자급자족 방식으로 풀어가는 공동체를 지

향하고 있다.

‘늘 행복’이란 단어는 ‘기한의 제한 없이 빌려준다’는 주택 공급자 중심의 ‘영구임대’란 말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다.

광산구 관계자는 아파트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늘 행복’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당위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참여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도 프로젝트 5대 전략의 하나인 의료·돌봄·일터 사업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 밖에 광산구는 ㈜주택관리공단, LH 광주전남본부, 광주의료협동조합추진위원회 등과 영구임대아파트 공실·상가 무상임대, 푸드 셰어링 사업 지원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여기서 확보된 아파트 공간들은 별도 설립된 ‘건강탐상 협동조합’을 비롯한 늘 행복 프로젝트 활동의 주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한다

정보 전달력·가독성 우선 고려 ... 10월 서비스 개시

광주시는 민선 7기 소통과 혁신의 시정 가치를 반영하고 대표 홈페이지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모바일 기반 반응형 홈페이지를 신규로 구축하고, 소속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합하는 등 오는 10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한다.

이번 전면 개편은 지난 2011년 이후 9년 만에 추진하는 것이다.

그동안 부분적인 디자인·기능 보완 등의 일부 수정 작업만 시행했지만, 시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는 홈페이지 개편 작업 요구가 절골 제기됐다.

이번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부터 홈페이지 개편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시민과 공무원 의견 수렴, 전문가 조언을 받아 추진 방향을 ‘시민 중심의 시민 공감형 홈페이지’로 설정한 후 개편 작업을 준비해 왔다.

광주시는 기존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되고 일방적인 정보 제공 방식에서 탈피해 이용자 성향 분석을 통한 개편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화된 맞춤형 홈페이지 메뉴 제공, 모바일 기반 반응형 페이지 구축, 통합 검색 기능 고도화, 간결함을 원칙으로 정보 전달력과 가독성을 우선 고려한 디자인 구성 등이다.

또한 장애인, 노인 등 정보 취약 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와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해 홈페이지 전체 메뉴와 콘텐츠를 웹 표준 및 접근성 지침을 준수해 개발할 예정이다. 외국인들도 위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홈페이지도 자주 찾는 메뉴 선택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김승승 광주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신규 구축에 준하는 홈페이지 전면 개편 추진을 통해 실수요자인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전국적으로 발병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용 긴급 대응 웹페이지를 개설하고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등 SNS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2020 우수창업기업 집중 지원

20개 창업기업 선정 사업화 자금 최대 5천만원까지

광주시는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우수창업기업 집중 지원’에 참여할 20개 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성장 잠재력을 갖춘 지역 우수기업을 선제 발굴하고 밀착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음달 3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과 지식서비스업 분야의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의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 도약기 기업이다.

우수창업기업 집중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최대 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고 전담 매니저의 사업화 전 과정 집중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보유기

업 등록을 통해 컨설팅, 경영진단, 인큐베이팅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의 모집공고를 확인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사업아이템의 우수성과 사업 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우수창업기업 집중 지원을 시작해 22개 기업을 선정해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64건을 출원·등록하고, 17억원의 투자유치와 26건의 판로개척 성과를 거뒀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소촌농공단지운영협의회, 대구시민 후원 활동

광주시 광산구 관내 기업체와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시름에 빠져 있는 대구시민을 돕기 위한 후원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4일 광산구 등에 따르면 광산구 소촌산단 기업대표 모임인 소촌농공단지운영협의회(회장 이정연)는 지난 2일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대구시민을 위해 써달라며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500만원을 보냈다.

3일에는 어룡동 통장단(단장 김철준)이 “언론을 통해 대구시민의 어려움이 접하고, 후원활동에 동참하게 됐다”며 같은 기관에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정연 소촌농공단지운영협의회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경계를 넘어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전체가 하루 빨리 위기에서 벗어나 공동 번영을 위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소촌농공단지운영협의회는 지난 1월 설 명절에도 지역 돌봄 이웃을 위해 300만원을 후원하는 등 매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어룡동 통장단은 지난 3일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00만원을 기탁했다.

교통사고 다발 교차로에 고효율 LED 투광등 설치

광주시는 야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차로 밝기를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는 광주 시내 주요 도로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차로에 고효율 LED 투광등기기를 설치한다.

설치 장소는 동구 남광주 교차로, 광산구 하남 흙플러스 사거리, 서구 농성광장

등 20곳이다. 광주시는 경찰청과 자치구와 협의를 마치고 4월부터 설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상무지구 한국은행사거리 등 22곳에 설치된 노후 메탈 등기구(1kW)를 LED투광기(400-600W)로 교체해 교차로 밝기 개선과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신세계안과

10인의 안과전문의 분야별 진료

노안 백내장

스마일 라식·라섹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